

국토부 공기관 인사 ‘큰장’... LH 등 4곳 CEO 인선중

JDC 문대림 차기 이사장 선임

코레일·LH·인천공항공사도 속도

이달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신입 수장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들 모두 작년 말에서 올해 초 CEO(최고경영자) 공모를 시작해 인사검증을 마무리 한 상태로,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차기 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JDC),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곳이 차기 기관장 선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수장 공백이 가장 길었던 JDC는 이날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차기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JDC는 이광희 전 이사장이 3년 임기를 다뒀 채우고 지난해 7월 26일 중도 퇴임한 이후 8개월 간 수장 자리가 비어있었다.

JDC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올 초 이사장 공모를 거쳐 최종 후보 3명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로

〈수장 교체 임박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기관명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JDC)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	문대림(6일 선임)	공석	정일영	박상우
임기 및 현황	이광희 전 이사장, 작년 7월 26일 사퇴	오영식 전 사장, 작년 12월 11일 사퇴	2월 1일 임기만료. 신입 사장 선임할 때까지 직무 연장	3월 24일 임기만료
모집공고	2018.12.28~2019.01.11	2019.01.04~2019.01.17	2018.12.04~2018.12.14	2018.02.07~2018.02.15
추진 현황	6일 국토부 임명, 7일 취임	1월 말 최종 후보 추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	작년 말 후보자 압축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회에 추천	이달중 공운위에 후보군 제출 예정

/자료=알리오 등

전달했다. 공운위는 4주간 인사검증을 걸쳐 문 대림 전 비서관을 추천했고, 이날 오전 국토부장관에게 최종 임명됐다. 문 신임 이사장은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문 신임 이사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 8, 9대 제주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그가 취임하면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영리병원(특히국제병원) 사업 등의 현안 과제를 풀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JDC 이사장 선임을 시작으로 다른 공기업들도 차기 수장 선임에 속도를 낼 것

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연초부터 사장 공모 접수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 최종 후보를 추려 공운위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11일 오영식 전 사장이 'KTX 탈선 사고' 등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한 이후 3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차기 사장 후보로 손병석 전 국토부 제1차관, 최성규 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김한영 공항철도 사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코레일의 잇따른 철도 사고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신입 사장으로 관료 출신을 선임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실제로 코레일 역대 사장을 보면 신광순 초대 사장과 최연해 6대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철도와 무관한 정관계 인사였다. 이에 따라 내부 출신의 승진 인사도 예상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정일영 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사장을 인선하고 있다. 정 사장은 신입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차기 사장

공모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후보자를 압축해 공운위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일영 사장을 포함한 역대 사장 7명 중 4명이 국토부 출신인 만큼 국토부 출신인 최정호 전 국토부2차관이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정치인 중에선 문학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하남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세평에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박상우 사장의 임기 만료에 앞서 차기 사장 인선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사장은 신혼희망타운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주택 정책을 완만히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연임설이 들었다. 그러나 LH가 신입 기관장 선임 절차에 돌입해 박 사장의 퇴임이 유력해졌다. 현재 박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과 함께 차기 국토부 장관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LH 차기 사장 후보로는 공민배 전 창원시장,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 사장, 김재정 국토부 전 기획조정실장 등이 세평에 올랐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지역일자리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

노사발전재단

지방자치단체 관련 100여 명 참석

올해 8개 지역 선정 후 지원 예정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컨설팅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발표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연계돼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산업 관계자, 지역노사상생 담당자를 포함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노사민정이 협력해 지역적합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광역·기

초자치단체에게 컨설팅 및 운영재원을 지원함으로써 노사민정 협력 모델을 확산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재단은 올해 8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시 박병규 특별보좌관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배인 행정사무관이 정부사업 및 중앙정부 후속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이어 노사발전재단 김태훈 부장이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지역에서 일자리 모델 및 실행방안이 개발돼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대학생 1만2600명에 희망사다리 장학금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중소·중견기업 취업 장려

29일까지 1학기 신청·접수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에 희망하는 대학생과, 고졸 이후 3년 이상 재직자 대학생 1만2600명에게 올해 국가장학금 864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9일까지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희망사다리 장학금 예산은 전년(646억원)보다 34% 증가해 지원 대상(8625명)도 크게 확대된다.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중소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을 지원하는 I 유형과 고졸 후 중소기업 재직자의 후학을 지원하는 II 유형으로 나뉜다.

I 유형 대상은 일반대 3학년, 전문대 2학년 이상 학생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기 당 200만원의 취업·창업 지원금이



지원되고, II 유형은 고졸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자 대학 1학년생부터 지원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대학 1학년 때 현장실무교육 후 2,3학년 때 학업과 기업 근무를 병행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I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전문대학 졸업 전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학생도 올해부터 II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이 완화됐다.

또 II 유형 장학생도 올해부터 다음 학기에 신청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도록 간소화했다.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I 유형은 15일~29일까지, II 유형은 7일~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과 각 대학은 5월까지 신청 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의지와 성적 요건을 각각 절반씩 적용해 지원 대상 장학생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진출과 고졸인재들의 새로운 성장경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홈쇼핑,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한국장애인재단과 체육 환경 마련 프로그램별 최대 500만원 지원 예정



홈쇼핑이 장애인 지원에 나선다.

홈쇼핑은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 장애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홈쇼핑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재단에 장애인 체육지원 기금 조성을 위해 50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건강증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양한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올림픽·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과 더불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3대 올림픽 대회인 '제15회 스페셜올림픽'(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이 아랍에미리트

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장애인단체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오는 14일까지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최종 제출 후, 공문과 함께 등기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장애인단체에 프로그램별로 최대 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통신 장애 시 배상받기 어려워”

소비자원

저렴한 요금·여러명 이용 가능 장점

4명 중 1명 통신장애 겪어... 불만 ↑



해외여행 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과 저렴한 요금으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 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5개(38.5%) 업체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한 경우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2개(15.4%)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민용 기자